

## 섬에서 세계를 본다

진행 : 김진호 교수(동아시아연구소 간사)

### ■ 개 회

### ■ 주제발표

제1주제 : 도서(섬)이론에 관한 시론

- 니이하라 미치노부(일본 요코하마 시립대학교 교수)

제2주제 : 해양문화적 배경에서 본 제주도

- 고선희(일본 中央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 사회자 : 강 근 형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자 : 유 철 인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김 부 찬 제주대 법학과 교수

장 원 석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지찌 노리코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 島嶼性 이론에 관한 논의

- 복합·혼합사회의 실체에 대한 사회학적인 고려: 사르데냐와 일본 - 1)

니이하라 미치노부\*

## 1. 서론

본 논문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Sardinia)에 대한 나의 연구와 알베르토 메를러(Alberto Merler)의 도서성(insularity)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sup>2)</sup> 나는 1987년 10월부터 11월, 1988년 10월부터 1989년 11월, 그리고 1991년 8월부터 9월까지 사르데냐에서 조사하였다. 사르데냐 조사를 통해 사회경제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발전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에 관한 한 도서간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나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는 지역공동체의 역할, 기업이 정신,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문화적 중재 등의 구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연구도 분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키나와와 사르데냐의 비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또한 내 생각에는 메를러의 도서성의 개념이 아시아와 지중해의 도서개발과정을 비교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르데냐 조사와 도서성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도서성 이론에 대한 논의와 사르데냐와 일본이라는 복합사회의 실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메를러의 도서성 이론에 대해 논의하고, 비교연구에 유용한 몇가지 개념을 추가로 제안할 것이다.<sup>3)</sup>

## 2. 도서성 이론: 복합·혼합사회를 이해하는 핵심요소

과거 몇 년간 다국적 기업과 인구가동의 증가로 인해 현대사회는 구조적 유연성이 증가되어 왔다.<sup>4)</sup> 온 세계의 주요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유출되고 있는 이러한 상

---

\* 일본 요코하마 시립대 교수

1) 이 글은 다음의 나의 논문을 요약·번역한 것이다. Michinobu Niihara, Un tentativo di ragionare sulla teoria dell'insularita. Considerazioni sociologiche sulle realta della societa "composita e complessa": Sardegna e Giappone. *Quaderni bolotanesi* 18: 177-191. 1992.

2) A. Merler. 1989, 1990, 1991.

3) 이에 대해서는 M. Niihara(1991b)를 참조할 것.

4) 복합사회에 대해서는 Y. Yamanouchi(1991)를 참조하고, 복합사회에서의 사회적 아이덴티티에 관해서는 A. Melucci(1989)를 참조할 것.

황에서 어떻게 아이덴티티(정체성)가 형성되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도시사회학의 고전적인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sup>5)</sup>

또한 이러한 상황을 도시로 이주한 개인과 고향에 계속 살고 있는 개인의 관점에서 연구할 수도 있다. 이 때 인종, 생활양식, 언어, 그리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고 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한 차이로 사람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기도 하고, 거주공간까지 뚜렷한 구역화(계토화)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계속적인 인구이동과 소규모의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재결합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사회를 복합사회(complex society)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상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혼합사회(composite society)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사실상 어떤 단일집단도 넓은 사회영역안의 사회문화적인 섬으로 고려되어 질 수 있고, 복잡한 관계에 의해 다른 섬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겠다.

인구이동 조절 정책이 실패한 이 시점에서 이러한 복합·혼합사회의 잠재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나는 도서성 이론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도서사회에 관련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다른 사회적 실체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오래 전 나는 알베르트 메를러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여러 입장에서 관찰과 지속적인 논쟁을 통해 우리는 복합·혼합사회를 연구하기 위한 접근방식과 분석 틀을 만들게 되었다.<sup>6)</sup> 물론 나의 관점과 메를러의 관점에는 약간 다른 점이 남아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연구방법은 직물처럼 세가지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낱실은 공통점을 강조한 나와 메를러의 이론적 견해의 비교이며, 씨실은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조건들간의 호혜적인 대결양상이며, 도서성 이론에 대한 공헌도가 그 결과물이다.<sup>7)</sup>

### 3. 알베르트 메를러의 도서성 이론

#### 1) 도서성의 세가지 차원

섬이란 용어는 종교, 언어, 문화 등의 관점에서 동질적인 사회집단을 가리키는 은유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때는 지리적·지형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된 것이다. 섬은 자체로 정의될 수 있고, 다른 집단에 의해 정의될 수도 있다(Merler 1991). Anne Codaccioni-Meistersheim(1988)에 의하면, 메를러가 사용하는 섬이란 용어는 세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도서성(insularity)으로 도서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말한다. 둘째는 도서주의(insularism)로, 도서주의는 도서환경에서 관찰된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지리정치적,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집합표상을 가리킨다. 셋째는 신조어인 insulity로 섬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인지적 환경과 시공간적으로 설정한 관계를 말한다.

5) M. Castells(1983)을 참조할 것.

6) 관찰자의 지위와 관련한 여러 입장에 대해서는 K. Yanagita(1990)와 N. Nakai(1978)의 방문객(tabibito), 이주자(kigusha), 원주민(dokyojin) 등의 개념을 볼 것. 또한 M. Niihara(1991a)를 참조할 것.

7) Glaser & Strauss(1967)를 참조할 것.

## 2) 도서성의 두가지 측면

### ① 개방적 공간과 폐쇄된 공간

메를러(1990)의 이론에 의하면, 도서라는 개념은 개방성과 폐쇄성이란 두가지 측면을 가진다. 폐쇄된 사회란 복합사회로 자립적이며 강한 연대감이 있다. 개방적 사회란 혼합적이며 이질적인 사회이다.

### ② 다른 견해들

도서라는 실체는 다른 시각에서 분석될 수 있다.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바깥의 입장과 섬 안에서의 입장이 있다. 섬 안에서의 입장에서 내부적인 것은 알려져 있고, 호기심은 바다나 다른 섬에 대한 것이다. 바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물(섬)은 알려져 있지 않아 먼저 해안선에서 인식되는 것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두 입장의 평가는 엄청 다르다.

섬 바깥의 입장에서 중심은 보편성으로 인식되고, 도서성은 주변적인 것으로 가정한다.<sup>8)</sup> 시각 또는 입장의 문제는 열도에도 해당된다. 열도 안의 여러 섬들을 열도 안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열도 전체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sup>9)</sup>

이러한 문제를 헤겔의 卽者(즉자/an sich/in itself)와 對者(대자/für sich/for itself)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개방적 공간과 폐쇄된 공간이라는 정의는 도서성을 그 자체로 파악하는 즉자적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입장/견해/시각의 문제는 도서성을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대자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서성(insularity), 도서주의(insularism), insulism을 섬 자체의 내재적 가치나 섬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고려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체로서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an sich) 도서라는 실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섬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 다음에 섬은 현상이 된다. 그러면 섬에다 외재적 가치를 부여하기(für sich) 시작한다.

메를러와 나는 작은 지역사회에서의 아이덴티티의 형성과정을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도서성과 도서주의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어 분석하고 있다.

## 4. 방문자의 입장에서 본 도서사회 (방문자가 말하는 도서성 이론)

### 1) “뿌리”라는 용어의 정의

여러 사람들을 묶어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내재적인 끈은 내가 말하는 지역공동체의 “뿌리”라는 것이다. 뿌리라는 말은 ① 지역의 환경, ②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의 사회문화적인 차

8) 이에 대해서는 일본내에서 쉽게 주변적 위치가 되는 곳으로 오키나와를 이야기한 M. Kano(1988)를 참조할 것.

9) 번역자 주: 일본에서의 離島라는 표현은 본토의 입장에서 본토를 제외한 섬(예: 오키나와 섬)을 가리키고, 오키나와에서는 오키나와 섬의 입장에서 오키나와 섬을 제외한 류구열도에 속해 있는 다른 섬을 가리킨다.

원 ③ 인구의 역사적 전승 등 세가지의 의미로 쪼갤 수 있다(Niihara 1990: 76).

도서성은 섬의 환경과 자연을 인식하는 내면적이면서 주관적인 방식을 의미하고, 도서주의는 섬의 사회문화적인 자원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방식을 가리킨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사와 공통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이면서 내면적인 해석이 insulism의 핵심이다.

사람들이 행동하고 관계를 엮어나갈 때 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호작용과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초가 된다. 메를러가 그러한 지역사회의 개방성(순환성)의 내적 요소를 중시하는 데 비해, 나는 지역사회를 하나의 전체로 간주하여 폐쇄성(고립된 장소)을 강조한다.

뿌리라는 집합적인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내재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으며, 객관화시킬 수 있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연구자가 그런 성질들을 개념화할 때는 객관화시켜 보편적인 것으로 만든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은 언급하지 않은 채 연구자는 외재적인 성질을 개념화된 연구대상으로 다룬다. 반대로 그런 성질들을 일상적인 경험의 특징으로 가정하는 연구자는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개념화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 뿌리가 깊은 사회의 복합성과 혼합성의 내재적 성질을 개념화할 수 있는 한 방법은 바깥에 있는 사람 즉 다른 섬의 거주자가 개념화하는 것이다.

## 2) 섬과 열도/방문객, 이주자, 원주민

지금까지 제시한 이론적 틀에서 새로운 가설을 끄집어 낼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서성(섬과 열도)에서 유추하여 개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객관화하고 집단을 만들고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자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문객(tabibito), 이주자(kigusha), 원주민(dokyojin)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연구자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 방문객은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관찰한 특정 실체로부터 일반적(보편적) 특징을 끄집어낸다. 그러한 일반적 특징은 차후 관찰의 준거가 된다. 이주자가 사용하는 준거들은 분석하려는 사회에 오기 전 자기가 살았던 지역에 대한 기억에서 만들어진다. 또한 원주민들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귀환이동을 한 2세 이주민이라 하겠다(Niihara 1991: 31). 사회를 분석할 때는 연구자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개념을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 3) 두 주변인의 관계: 이주자와 방문객의 비교

이주자로서의 메를러와 방문객으로서의 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이주자와 방문객이라는 연구자의 지위가 어떤 개념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비교를 통해 어떤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나는 개방성과 폐쇄성, 대상과 실체, 집합표상과 개인적 관념이라는 메를러의 개념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개념들에 즉자적 성질(그 자체로서의 성질)과 대자적 성질(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성질)이라는 두가지 성질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메를러와 같

은 이주자들은 개방성을 강조하고 원주민들은 폐쇄성을 강조하게 된다. 또한 메를러와 내가 다른 점은 뿌리의 개념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도의 개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간의 차이는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번역: 유철인)